

# 갯벌의 수직적 환경특성 및 토수실험에 의한 오염물질 정화능력 평가

김종구\*, 유선재

군산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

## 서 론

갯벌의 생태계는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이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며 미생물과 조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양염류의 보전성이 강하고 생산성이 큰 지역이다.

갯벌은 유입된 유기 및 무기영양염류와 독성물질들을 제거하는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. 밀물과 썰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표층퇴적물은 뒤섞이고 해수 또는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산소에 의해 신속히 환원상태의 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한다.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부영양화물질들을 분해, 흡수하여 적조발생 및 빈 산소수괴의 발생을 방지하여 해수의 오염을 막아준다.

갯벌의 여러기능중 오염물질의 제거능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 오염물질 수용 및 정화능력에 관한 자료는 없으며, 지금까지 염생습지 및 mangrove습지가 발달된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왔다.

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갯벌의 오염물질 정화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갯벌의 기본적인 특성을 조사하고, 갯벌이 가지는 오염물질 정화능력의 관점에서 오염수에 따른 정화능력을 비교·평가해 보고자 한다.

## 재료 및 방법

### 1. 연구대상지역

갯벌의 오염물질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갯벌의 조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, 코아반응기를 이용한 토수실험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제거능을 조사하였다. 대상 지역은 사질로 구성된 충남 서산 춘장대갯벌과 니질로 구성된 군산시 옥구 어은리갯벌 그리고 사니질로 구성된 전북 부안 계화도갯벌이다.

### 2. 연구내용 및 방법

#### 가. 갯벌의 물리, 화학적 특성조사

갯벌의 이·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하여 코아채니기를 이용하여 25cm 까지의 갯벌을 채니하여 표층에서부터 5cm 간격으로 입경분포, 유기탄소량, 강열감량 및 산화환원 전위, COD, 황화물, pH 및 영양염 용출량을 측정하였다(해수부, 1988 :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, 1980).

#### 나. 갯벌의 수리학적 특성조사

간석토양의 투수성을 알기 위해서 변수위 투수실험을 행한다. 투수실험에서 토양

시료를 넣은 칼럼을 48mesh 체위에 놓고 갯벌표면에서 약 20cm 정도의 증류수를 넣고 수위저하 속도를 측정한다. 측정순서는 우선 25cm의 갯벌시료의 투수실험을 행한 후, 바닥에서 5cm씩 순차적으로 제거해서 투수실험을 행한다.

#### 다. 오염물 정화능력 측정

##### 1) 실험시료의 조제

실험에 사용한 시료수는 익산시 하수처리장의 최초침전지에서 채취한 생하수를 이용하였다. 생하수와 해수의 혼합비에 따른 오염물질농도 제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4종류의 시료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.

##### 2) 통수실험을 통한 갯벌 정화능력 평가

통수실험을 통한 갯벌의 정화능력 평가는 투수실험의 결과 투수능이 15ml/min 이상이 되는 춘장대 갯벌을 이용하였다. 시료는 현장에서 아크릴칼럼(직경 60mm × 높이 60cm)에 채취해서 그 하부에 유출구를 불힌 corn관으로 실험을 행하였다. 하부에 저니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망사를 사용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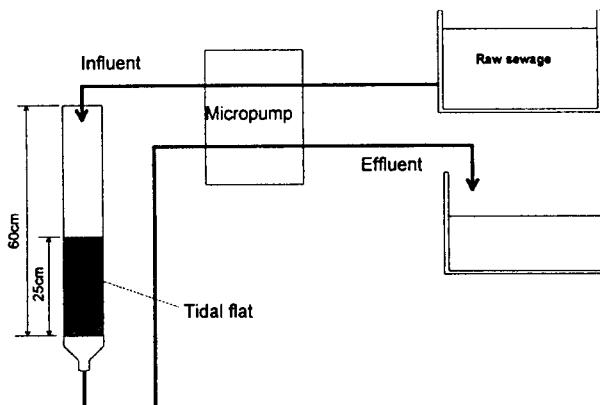


Fig.1.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ystem.

## 결 론

서해연안의 3지점 갯벌인 춘장대 갯벌, 어은리 갯벌 그리고 계화도 갯벌을 채취하여 갯벌의 수직적 환경특성을 조사하고, 통수실험에 의한 오염물질 정화능력을 평가해 보았다. 갯벌의 입도특성을 보면, 어은리 갯벌은 니질 함량 98.89%, 춘장대 갯벌은 모래함량 97.99%였고, 계화도갯벌은 니질 32.81%, 사질 67.19%로 나타났다. 유기물 관련인자(IL, COD, POC)는 니질 함량이 높은 어은리 갯벌에서 다른 두 갯벌 보다 3~4배 높았다.

갯벌 측정인자간의 상관분석에서 유기물 관련인자(IL., COD, POC, PON) 간에는 0.821~0.940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. 갯벌의 투수량은 춘장대 갯벌이 평균 18.66ml/min 이었고, 어은리 및 계화도갯벌은 거의 투수되지 않았다.

통수실험에 의한 COD의 정화능력은 평균제거 농도범위가 1.0~6.8mg/l 이었고, 유입 농도를 기준으로 한 유기물 제거율을 계산하면, R1이 13.6%로 가장 높았고, R4에서 7.77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

영양염류의 정화능력을 보면, 암모니아질소 평균 제거농도 범위는  $7.30\sim38.52\text{mg/l}$ , 질산질소 평균 제거농도 범위는  $-0.84\sim2.53\text{mg/l}$  이었고, 해수가 첨가되지 않은 R1, R2에서 암모니아질소의 제거율이 비슷하나, 질산질소의 제거율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. 해수가 포함된 시료의 경우, 탈질작용이 억제되어 질산질소가 오히려 축적되는 결과를 보였다.

총인의 평균 제거농도는  $0.25\sim0.64\text{mg/l}$ 이고, 유입수에 대한 농도 제거율은 21.9~45.4%이며, R3에서 높았고, R4에서 낮은 제거율을 보였다.

납의 평균농도 제거범위는  $0.439\sim0.920\text{ppm}$ 이며, 유입수에 대한 평균농도 제거율은 R3에서 96.5%로 높았고, R1에서 67.1%로 낮게 나타났다.

카드뮴의 평균농도 제거범위는  $41.82\sim90.34\text{ppb}$ 이고, 유입수에 대한 제거율은 R3에서 86.8%로 높게 나타났고, R1에서 63.1%로 가장 낮았다.

유기물의 정화는 하수중의 유기물농도가 높을수록 정화능이 증가함을 알았고, 총인, 납 및 카드뮴은 해수와 하수의 혼합비에 의한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.

### 참고문헌

- Cooke, J.G., 1992, Phosphorus removal processes in a wetland after a decade of receiving sewage waters, *J. Environ. Quality*, 21, 733-739.
- Gersberg, R.M., 1983, Nitrogen removal in wetland treatment of wastewater, *Water Research*, Vol.17, 1009-1014.
- Howard Odum, 1985, Self-organization of ecosystems in marine ponds receiving treated sewage, US Sea Grant Publication # UNC-SG-B5-04.
- Nichols, D.S. 1983, Capacity of natural wetlands to remove nutrients from wastewater, *J. of WPCF*, 55 (5), 495-505.
- 木村 賢史, 1994, 人工干潟の水質浄化機能, ヘドロ No.60, 59-81.
- 李正奎, 1998, 干潟の創出に関する基礎的研究, 廣島大學, 博士學位論文,
- 今岡務, 鹽谷降亭, 龜井幸一, 1995, 人工干潟の水質浄化能に関する實驗的検討, 用水と廢水, Vol.32, No.12, 978-985.